국방 AI ·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글로벌 협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XR기업 펀잇, 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전주지역 가상융합(XR)·AI 기반 실감형 훈련 솔루션 전문 개발사인 ㈜펀잇(대표 최인형)이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Defence Technology Institute, 이하 DTI)와 국방 AI 및 시뮬레이션 기술(SimTech)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국 DTI는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 현지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와 국방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 ㈜펀잇은 XR 기반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AI Vision 기반 훈련평가, 3D 공간컴퓨팅 및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온 전주지역 유망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인 ㈜펀잇이 보유한 XR·AI 기반 실감형 훈련 기술과 태국 DTI의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해,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방분야의 미래형 교육·훈련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지역 가상융합(XR)·AI 기반 실감형 훈련 솔루션 전문 개발사인 ㈜펀잇이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 AI 및 시뮬레이션 기술(SimTech)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AI 기반 국방훈련 분석 및 평가 기술 공동연구와 기술 연계 △XR·MR 기반 전술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및 실증 협력 △M&S(Modeling & Simulation) 분야에 적용 가능한 SimTech 기반 가상훈련 체계 구축 지원 △3D 공간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국방훈련 분야 적용 △국방 교육·훈련 콘텐츠 공동 개발 등 국방 AI·M&S·SimTech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펀잇은 AI가 훈련자의 행동, 자세, 이동 경로, 상황 대응 능력을 정밀 분석하고, 가상훈련 종료 후 정량적 평가 결과를 자동 제공하는 '지능형 훈련평가 기술'을 중심으로 DTI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교관 중심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데이터 기반 차세대 국방 훈련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펀잇은 진흥원이 지난 2025년까지 운영해 온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XR기반 훈련 시뮬레이션과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왔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성장한 ㈜펀잇의 기술력이 글로벌 국방시장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진흥원은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ICT·가상융합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결과 발표

한 가족 생활사 자료, 최우수 기록물 선정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버지와 8남매의 상장, 성적표, 졸업장, 표창장, 도민증, 병역수첩에 이르기까지 한 집안의 역사가 간직된 100여 건의 일괄 자료가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주와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출품된 34건 378점의 응모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로의 '여행' 부문과 '전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여행' 부문 16건 147점과 '전주' 부문 18건 231점의 자료가 접수됐다.

심사 결과, 박종탁 기증자의 아버지와 8남매의 가족 생활사 자료가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됐다. 이 기록물은 옹기공장을 운영했던 기증자의 아버지와 8남매의 상장, 성적표, 통지표, 앨범 등 한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104점의 자료들이다.

집안의 60년 생활사(1958년 친구들과 덕진공원 나들이)

또한 '여행' 부문에서는 △1968년 전라북도박물관(현 경기전 전주사고) 입장 관람권 △1973년 서울-전주 그레이하운드(화장실과 냉난방기를 완비한 미국산 대형버스) 고속버스 승차권 등이 이색적이고 희소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됐다.

/권희성 기자

양파 가격 하락 속 '전주 양파' 대만 수출길 올라

한옥애뜰 양파 수출 선적식 열려

전주시 농산물 브랜드인 '한옥애뜰 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오르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원예농협은 29일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강세권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유은례 농업정책과장,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 임종경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승진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전주원예농협은 29일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양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서 참석자들은 양파 1080상자(16.2톤)의 대만행 선적을 격려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양파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산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대만 수출은 국내 시장에 집중된 출하 물량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애뜰 양파는 우수한 품질관리와 선별 과정을 거쳐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대만 소비자들에게 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전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해 세정과, 교통안전과, 상하수도본부, 완산구·덕진구 세무과, 여성가족과, 건설과 등 시·구청 9개 부서에 각각 2명씩 배치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을 전담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생활 안정을 돕는 시민 중심의 체납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제2회 전주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 개최

전주시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2회 전주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관하고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덕진구 팔복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연결에서 공존으로 공간을 재편하다: SOLID·GAP·BUFFER'로, 산업·주거·자연·문화가 공존하는 팔복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공간디자인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개인 또는 최대 5인까지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작품 접수는 진행된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등 총 5팀에게 전주시장상이 수여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29일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하는 '2026년 상반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주시니어클럽,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12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시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서비스 본인부담 확인 절차, 회계 처리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 기관별 통합돌봄 제공서비스 소개 등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희성 기자